

디지털아이(043360)

잉크젯 및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술 고도화를 통한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확보

기업정보(2022/04/12 기준)

대표자	최동호
설립일자	1985년 01월 01일
상장일자	2001년 07월 06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주요제품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광고용 및 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등

시세정보(2022/04/18 기준)

현재가	4,13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372억 원
발행주식수	9,000,000주
52주 최고가	7,350원
52주 최저가	2,610원
외국인지분율	3.08%
주요주주	
최관수 외 9인	44.86%

■ 다종의 산업용 프린터 글로벌 판매를 위한 사업체제 구축

디지털아이(이하 동사)는 수입에 의존해 오던 커팅플로터(Cutting Plotter)와 잉크젯 프린터를 자체기술로 제품화하여 기반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해당기술의 응용을 통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igital Textile Printing, DTP) 관련 고유체계를 확립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사는 현재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대형 사인광고용 잉크젯 프린터, 커팅플로터, 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등의 다양한 품목을 제작·판매하여 주요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폭넓은 영업망을 구축하여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60여개국에 자체 브랜드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 목표시장 지속성장 중, 동사 판매제품 수요 증가 전망

동사는 2021년 기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의 판매를 통해 40%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이 속하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는 트렌드의 회전속도가 빨라지고 개별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요구되는 패션·섬유산업의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제품이며, 디지털 정보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에 대한 개발·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공급의 조합에 따라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동사는 고유의 디지털 프린팅 기술과 다양한 염료 및 안료, 용매에 대한 축적자료를 활용하여 목표시장 내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 기반기술 고도화 및 제품군 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마련

동사는 펜 플로터, 광고용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 섬유용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의 자체 개발을 통해 IR-52 장영실상을 3회 수상하였다. 또한, 해당제품의 개발을 위해 도입된 기술을 고도화하여 식용색소를 활용한 식품용 프린터를 개발하며 제품군 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9	153.7	-27.0	-33.0	-21.5	-33.7	-21.9	-7.2	-6.7	7.0	-374	5,123	-	0.5
2020	154.7	0.6	4.5	2.9	6.8	4.4	1.5	1.4	10.9	76	5,199	32.6	0.5
2021	145.9	-5.7	-14.2	-9.7	-6.3	-4.3	-1.4	-1.2	9.0	-70	5,102	-	0.6

기업경쟁력

디지털 잉크젯 프린팅 자체 기술 확보

- 디지털 잉크젯 프린팅 구현을 위한 자체 기술 확보
- 프린터 헤드 제어, 프린팅 정밀도 제어, 잉크 제어, 미디어 이송 시스템 등과 관련된 요소기술 확보
- 디지털 잉크젯 프린팅 구현기술의 고도화 및 확장 적용을 통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식품용 프린터 등 개발

글로벌 사업체제 구축

- 글로벌 프린팅 산업 내 최대시장인 미국·중국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약 60여개국에 Business Partner를 확보하여 글로벌 영업망 구축
- 자체 브랜드 판매 외 해외 글로벌 기업과 제휴하는 ODM, 재판매(Reselling) 사업도 진행
- 최근 3개년간 수출을 통한 매출비중 약 70%대

주요제품 및 매출실적

주요 제품



주요 매출실적

(단위: 억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프린터 및 관련 부문	146.6	147.4	138.6
기타(임대수익)	7.1	7.3	7.3
합계	153.7	154.7	145.9

시장경쟁력

글로벌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시장규모

연도	시장규모	이슈
2021년	159.1백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1% 성장 전망 ● 소량 다품종 패션 · 섬유제품 생산을 위한 프린팅 수요 증가
2028년(E)	311.7백만 달러	

산업용 프린터 국내시장 주요기업

- 주요기업
- 동사, 빅솔론, 에이루트 등
- 동사: 산업용 프린터 시장 내 디지털 텍스타일 부문, 대형 사인광고용 잉크젯 부문 등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지위 제고 중

제품군 다각화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 시도

- 피그먼트 잉크의 상품화와 함께 주력 제품인 전자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POSEIDON)의 국내 및 해외 시장 영업망 확대
- 중국시장을 목표로 한 유기용매 기반 대형 프린터 출시, 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신사업 육성 등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폐기물 배출량 저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환경경영 실적을 인정받아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함.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다양한 인증(MDD, MDR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ISO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함.
- 동사는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수행하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정보보호 정책 및 임직원 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음.
- 동사는 협력사 및 소비자에 대한 공정거래 원칙을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디지털 잉크젯 프린팅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주력

동사는 잉크젯 프린터부터 디지털 텍스타일 프링팅 시스템 설계, 제어, 구축, 유지보수까지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특화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폭넓은 영업망을 통해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 기업개요

동사는 건축 및 사무용 제도 기기의 생산과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5년 1월 일리산업사라는 개인사업자로 설립되었다. 이후, 1991년 11월 (주)일리로 법인전환하였으며, 2000년 04월 현재의 (주)디지털아이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1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세계일류상품(디지털 잉크젯 인쇄기 부문) 선정, 장영실상(펜 플로터, 광고용 디지털 잉크젯 프린터, 섬유용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수상, 과학기술포상, 신기술 인증 취득 등의 실적을 통해 대외적으로 기술력 및 경쟁력을 입증하여 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미국 특수 그래픽 이미지 협회(Specialty Graphic Imaging Association, SGIA)가 부여하는 올해의 제품상을 2018년 처음으로 수상한 이후, 2019년에는 텍스타일 부문에서 전 부문을 석권하며 글로벌 프린팅 산업 내 기술력을 입증하였다.

한편, 동사는 영업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리점 판매방식의 영업전략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현재 국내 직영 영업지점을 구축하고 있으며, 글로벌 프린팅 산업 내 최대시장인 미국·중국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약 60여개국에 Business Partner를 확보하여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1] 동사의 연혁 및 주요 이슈



*출처: 동사 IR자료(2020.03)

■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의 수출을 통한 주요 매출 시현 중

동사의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의 2021년 매출액은 14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다. 주력 사업부문인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부문과 신규 육성 부문인 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부문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COVID-19 팬데믹에 따른 대형 사인광고 업계의 신규 설비투자 저하에 따라 대형 사인광고용 잉크젯 프린터 사업부문과 잉크 유통 사업부문의 실적이 저하되어 동사 전체 매출은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COVID-19 팬데믹 종식과 이에 따른 산업 전반의 회복세 전망 하에 동사는 대형 사인광고용 잉크젯 프린터의 해외판매 증대 및 영업망 확충 등에 기반하여 매출 회복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2] 동사의 주요 사업부문



*출처: 동사 IR자료(2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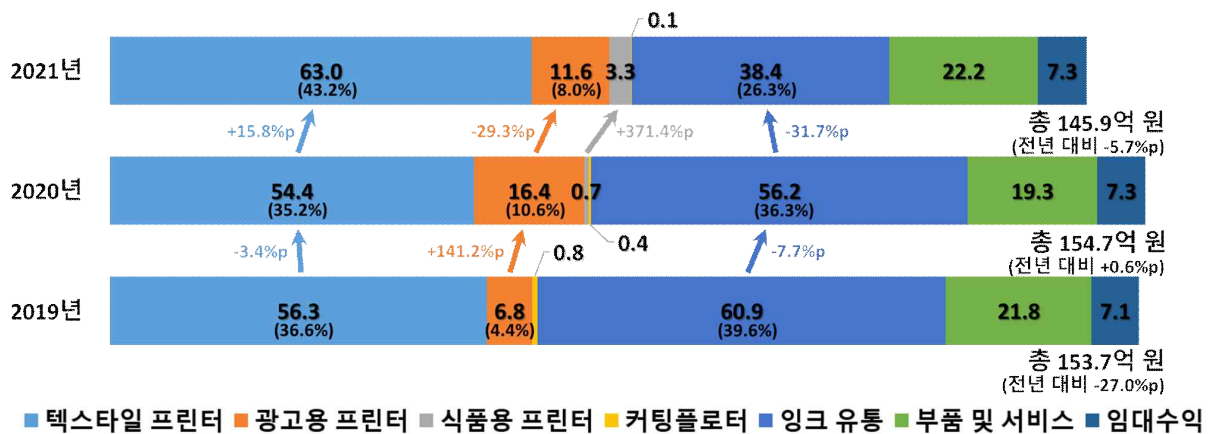
2021년 사업부문별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동사 전체 매출의 43.2%를 차지하며 주력 부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외, 대형 사인광고용 잉크젯 프린터 부문이 8.0%, 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부문이 2.2%, 잉크 유통 부문이 26.3%, 부품 판매 및 서비스 부문이 15.2%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는 부동산 임대를 통해서도 5.0%의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동사는 최근 3개년 상품매출 비중은 줄고 제품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사업구조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잉크 유통 사업부문의 매출 규모 및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를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대형 사인광고용 잉크젯 프린터·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부문의 매출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동사의 매출외형은 2021년 전년 대비 소폭 하향세이나 약 150억대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신규 사업부문인 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부문의 경우, 2021년 매출액은 2020년 대비 371.4% 증가하였으며, 동사는 해당부문 영업력 강화 및 식용색소 기반 식품 프린팅의 대중화 제고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속적 매출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3] 동사의 사업부문별 매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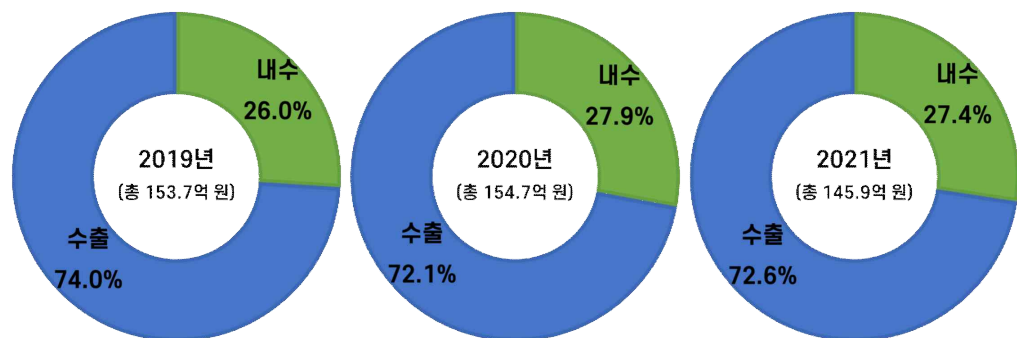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동사는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72.6%를 해외에서 실현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수출을 통한 매출비중이 70%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프린터 산업의 특성으로 동 산업 내 주요기업들 모두 글로벌 시장 내 최대시장인 미국시장 및 고성장이 전망되는 중국시장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수출중심형 사업구조를 갖추고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4] 동사의 해외매출 비중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목표시장 성장 전망에 동사 기술제품 수요 증가 전망

동사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의 판매를 통해 주요 매출을 실현하고 있는 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시장의 구조, 특성, 전망 등을 고려하여 동사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패션·섬유산업 내 소비자 가치의 변화와 함께,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의 회전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트렌드의 지속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개성은 더욱 강해지고 개인주의에 의해 주위의 추구패턴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패턴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자에게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즉, 차별화, 개성화, 고급화된 소비자의 성향에 맞추어 시장은 더욱 다양하고 특이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별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생산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 개인별 맞춤 제품이 요구되고

있어 디자인당 주문량은 감소하였다. 이처럼, 패션·섬유시장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을 용이하게 하여 급변하는 트렌드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폭 넓은 연령층의 다양한 요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이 반영된 패션제품의 생산을 위한 날염(염색)공정의 경우, 환경친화성 및 경제성 향상 방안의 도출이 이슈화되고 있어, 용수 및 원료 절감을 통한 공정의 단순화가 가능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디지털 정보기술의 접목을 통해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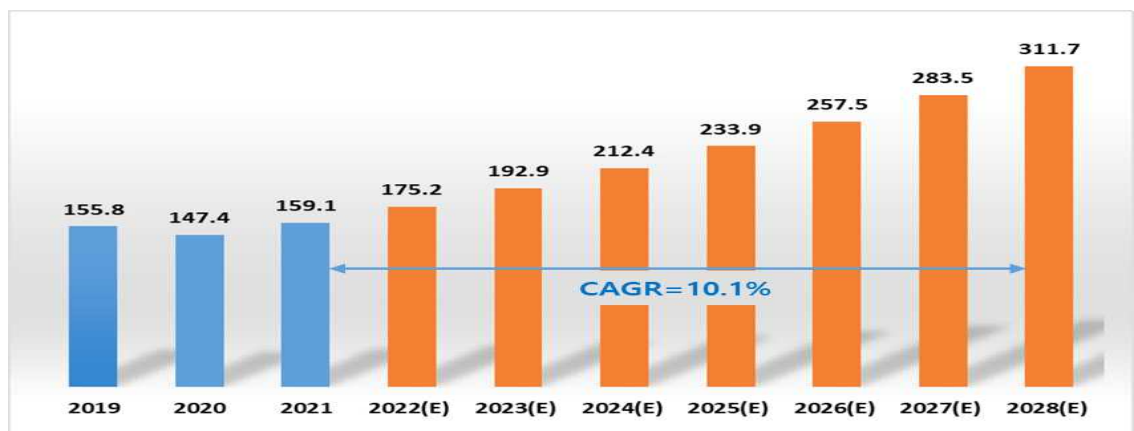
더불어,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염료 및 안료 잉크를 적용한 디지털 장비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자연섬유나 합성섬유에 인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류용 원단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침장류, 신발 등의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은 패션·섬유 산업 내에서 개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가능케 하였으며, 이에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도입한 어플리케이션 및 관련 제품의 개발은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동사는 잉크젯 프린터 개발을 하면서 축적해온 잉크젯 기술을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분야에 응용함으로써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을 친환경 고생산성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동사의 수출 기반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Fortune Business Insights의 시장분석 자료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시장의 현황 및 성장성을 살펴보면, 동 시장은 2020년 147.4백만 달러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 대비 5.4% 감소한 규모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방산업의 침체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해당시장은 COVID-19 기저효과에 의해 시장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패션 트렌드에 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요구되는 패션업계의 디지털 프린팅 수요가 증가하여 2021년 159.1백만 달러 규모를 회복하였다. 2021년 이후 연평균 10.1% 비율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311.7백만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글로벌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출처: Fortune Business Insights, 'Global Digital Textile Printing Market', 2020,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코스닥 상장사 중 동사와 같이 산업용 프린터를 개발하는 기업으로는 빅솔론, 에이루트 등이 있다. 2021년 매출액을 비교하면, 빅솔론이 전체 및 산업용 프린터 부문 매출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에이루트, 동사 순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 대비 빅솔론 및 에이루트는 범용성이 높은 산업용 프린터를 판매하는 바, 국내 산업용 프린터 시장에서 판매 제품군이 상이하여 진입가능한 세부 하위시장이 다르고, 이에 따라 매출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국내 산업용 프린터 시장 내 디지털 텍스타일 부문, 대형 사인광고용 잉크젯 부문 등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표 1] 국내 주요 산업용 프린터 제작기업

(K-IFRS 연결 기준)

기업명	<div>동사</div> 	<div>빅솔론</div> 	<div>에이루트</div> 
설립일	1985년 01월 (2001.07 코스닥 상장)	2002년 11월 (2007.08 코스닥 상장)	2002년 04월 (2010.12 코스닥 상장)
주요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 제품군 -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 대형 사인광고용 잉크젯 프린터 - 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 잉크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 제품군 - 포스트프린터 - 라벨프린터 - 모바일프린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 제품군 - 라벨프린터 - 포스트프린터 - 모바일프린터 - 기기 유통
2021년 매출액	※ 전체 매출 기준 145.9억 원 (전년 대비 -5.7%) ※ 프린터 및 관련 부문 매출 기준 138.6억 원 (전년 대비 -6.0%)	※ 전체 매출 기준 1,003.9억 원 (전년 대비 +34.8%p) ※ 프린터 및 관련 부문 매출 기준 1,003.9억 원 (전년 대비 +34.8%p)	※ 전체 매출 기준 458.9억 원 (전년 대비 +32.4%p) ※ 프린터 및 관련 부문 매출 기준 231.8억 원 (전년 대비 +19.9%)
2021년 영업 이익률	-9.7% (전년: 2.9%)	14.0% (전년: 5.6%)	-10.4% (전년: -7.4%)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2021.12) 및 네이버금융, NICE디앤비 재구성

■ 디지털 잉크젯 프린팅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시장수요에 대응

동사는 수입에 의존하던 커팅플로터(컴퓨터 사인 S/W를 이용하여 작성한 문자, 기호 등을 시트지에 커팅하여 주는 기계) 및 잉크젯 프린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잉크젯 프린터를 개발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염료 및 안료, 용매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날염공정과 잉크젯 프린터를 결합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동사는 고유의 디지털 잉크젯 프린팅 체계 구현을 위해 프린터 헤드 제어, 프린팅 정밀도 제어, 잉크 제어, 미디어 이송 등과 관련된 요소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미세 분사 알고리즘을 직접 설계하여 프린터 헤드의 분사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헤드 제어기술 외 피딩 및 출력과 관련된 정밀 제어 구조를 고안함으로써 최종 프린팅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있다.

더불어, 프린팅을 위한 잉크에 대한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프린팅 시 잉크 액적(Droplet)의 형상을 의도한 대로 균질하게 제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프린팅의 정확도 향상에 기인하는 프린팅의 파형(Waveform)을 조건에 따라 정밀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소재에 프린팅을 구현할 수 있는 미디어 이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천류 및 비닐 시트지, 후렉스지 등의 연질의 소재부터 의류 및 스포츠 디자인에 적용되는 텍스타일 타입까지 프린팅이 가능하다.

[그림 6] 동사의 핵심기술



*출처: 동사 IR자료(2020.03)

동사는 자체 개발 디지털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공인 기술 포상 중 수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IR-52 장영실상을 3회에 걸쳐 수상하였다. 이는 프린팅 산업 내 동사 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크게 부각시키는 요소로 파악된다.

동사는 공증된 우수한 기술을 활용하여 섬유·광고·식품 산업 등에 도입가능한 프린터를 개발하여 제품화하였다. 동사는 각 산업군별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텍스타일 프린터 부문에서는 고속·대량생산·하이브리드 원단 도입 등이 각각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또한, 광고용 프린터 부문에서는 안료·용매·원단 등의 소재에 따른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 7]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각종 디지털 프린터 전문 제조업체이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환경(E) 부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으며, 동사는 환경 또는 에너지 관리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겸임 담당자를 두고 있다. 한편, 동사는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제품 생산에 따른 부산물 및 폐기물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과 같이 기존 날염공정을 단축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저감하는 친환경 공법을 개발하였으며, 실사 프린팅에 친환경 에코솔벤트(Eco Solvent)를 사용하는 등 주요 사업을 통해 간접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리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겸임 담당자를 두고 있다. 또한, 경영이념 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경영을 추진하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동사의 경영이념과는 별개로 최근 동사가 별도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 이력은 확인된 바 없다.

한편, 동사는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안전교육과 보건관리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인권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사는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충처리 제도와 구내식당, 휴게실과 같은 직원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호회 활동 지원, 경조사 지원, 문화활동 지원, 기숙사 지원, 학자금 지원, 카풀제도 등의 임직원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같이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21.12)에 따르면, 동사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 비율은 4.7%로 동업종(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산업 평균 13.3%를 크게 하회하여 동 산업을 영위하는 경쟁업체 대비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동사의 여성 근로자 비중,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및 급여수준은 각각 14.1%, 67.9%, 43.7%로 동 산업 평균 22.4%, 91.4%, 72.4% 대비 하회하는 바, 동사는 고용평등 기여 수준은 동업종 경쟁업체 대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55	362,206	10.6	9.3	42,950	69,276
여	9	104,310	7.2	8.5	18,767	50,172
합계	64	466,516	-	-	-	-

*출처: 고용노동부 「202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지배구조 관련 윤리 또는 컴플라이언스 전담부서나 담당자 보유 현황이 확인된 바 없으나, 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동사의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와 분리되어 있으나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특수관계를 보유하고 있어 완전한 이사회 의장 독립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동사는 사내이사 5인만을 선임하고 있어 사외이사 선임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내이사 5인이 전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를 가져 이사회 독립성 또한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4.60%로 경영 안정성은 높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회계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비상근 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 지원조직을 운영하여 감사 지원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자투표제 등의 주주 의결권 행사 지원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배당을 추진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X	회계 전문성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44.60
사내/사외/기타비상무	5/0/0	특수관계인	X	소액주주 지분율	44.27
사외이사 비율	0	내부통제 제도	○	3년 이내 배당	X
사외이사 지원조직	X	감사 지원조직	○	의결권 지원제도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II. 재무분석

COVID-19 팬데믹 장기화로 2021년 실적 둔화되었으나, 안정적인 재무구조 견지

동사의 주력 제품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로, 상기 제품의 수출이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2021년 COVID-19 팬데믹의 지속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한 매출실적을 나타낸 가운데, 전체 수익성이 다시 적자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재무구조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동사의 공격적인 영업망 확대, 신제품 출시 등이 향후 매출 회복세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에도 텍스타일 프린터 해외수출이 동사 매출을 견인

동사는 섬유 소재에 각종 문양을 새길 수 있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를 개발하여 2010년 8월 출시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주요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북미, 남미, 유럽 등 다수의 해외 대리점을 통해 최종 수요처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동사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처는 CANON SOLUTION AMERICA, AGFA NV이다.

동사는 매년 국내·외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여 기존 제품 및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전시회 전·후 동사의 전문딜러인 해외 엔지니어사를 대상으로 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해외시장의 판매망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전담 A/S 조직을 구성하여 신속한 A/S와 함께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시정해나가고 있는 전략으로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 COVID-19 팬데믹의 지속으로 2021년 매출 소폭 감소

COVID-19 팬데믹의 지속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시장회복이 지연되면서 프린팅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동사는 2019년 153.7억 원, 2020년 154.7억 원, 2021년 145.9억 원의 매출을 각각 기록하며 최근 3개년간 매출 정체를 보였다.

2021년에는 주력 제품인 텍스타일 프린터의 수출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인광고 시장에서의 장비판매 부진과 더불어 사인광고용 잉크, 텍스타일용 잉크 판매량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5.7% 감소한 145.9억 원의 매출을 실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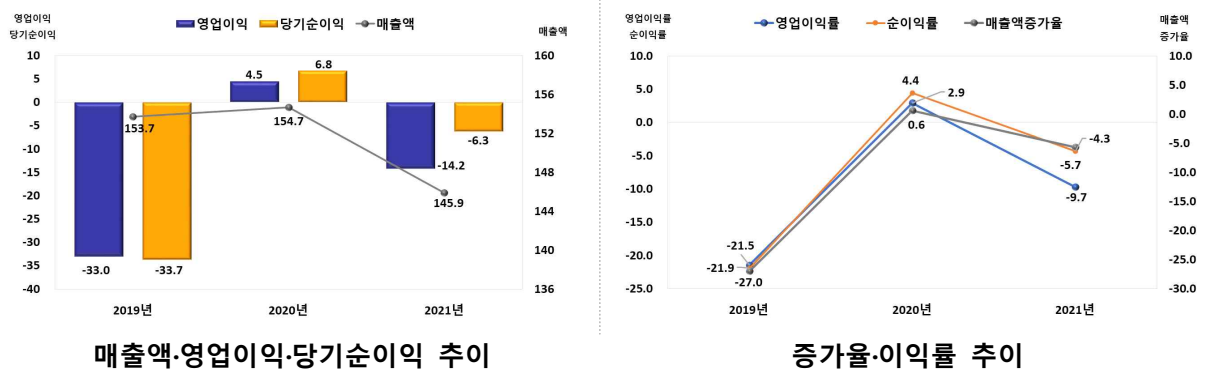
■ 2021년 원가 부담 확대와 고정성 경비 부담 증가로 다시 적자 전환

2020년 동사는 매출정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 부담 축소, 인건비, 해외시장개척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의 완화로 4.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상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주요 원재료 매입단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인건비, 수출제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판매비와관리비 부담으로 14.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상태로 재차 전환하였다.

한편, 지분법처분이익, 외환차익 증가 등으로 영업외수지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상기 지분법처분이익은 전기 24.5%의 지분을 보유중인 넥스트스토리(주)의 주식이 (주)자이덱스와의 주식교환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여 기타포괄손익과 공정가치의 차액이 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되며 발생한 바, 단발적인 수익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순손실 6.3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수지가 적자 상태로 전환하여 열위한 수익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8]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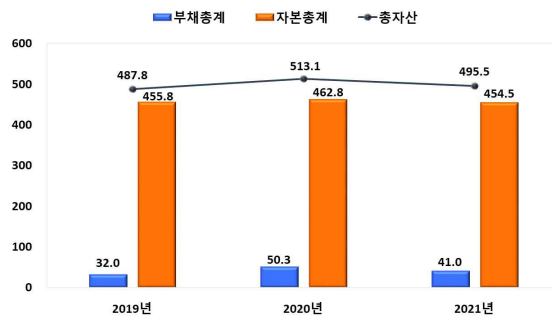
■ 순손실 시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재무구조 견지

2021년 순손실 시현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로 자기자본 규모는 전년 462.8억 원에서 454.5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나,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 부채 규모도 함께 축소되어 2021년 전 년과 비슷한 수준인 부채비율 9.0%, 자기자본비율 91.7%를 기록하였다.[2020년 부채비율 10.9%, 자기자본비율 90.2%]. 덧붙여 동사는 최근 3개년간 이익잉여금이 자기자본 대비 70%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2019년 69.8%, 2020년 70.3%, 2021년 70.2%] 전반적인 재무 구조가 우수한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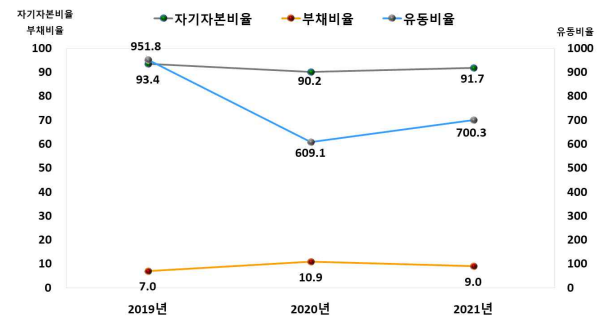
또한, 유동비율도 699.7%로 우수하고,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자산이 총자산의 25.3%로 일정 수준의 현금유동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3개년간 차입금의존도가 각각 2019년 0.0%, 2020년 1.3%, 2021년 1.4%를 기록하며 1% 내외의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입금 대부분이 외상구매자금 성격인 수출환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차입금 부담은 전무한 수준이다.

[그림 9]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개별기준)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153.7	154.7	145.9
매출액증가율(%)	-27.0	0.6	-5.7
영업이익	-33.0	4.5	-14.2
영업이익률(%)	-21.5	2.9	-9.7
순이익	-33.7	6.8	-6.3
순이익률(%)	-21.9	4.4	-4.3
부채총계	32.0	50.3	41.0
자본총계	455.8	462.8	454.5
총자산	487.8	513.1	495.5
유동비율(%)	951.8	609.1	700.3
부채비율(%)	7.0	10.9	9.0
자기자본비율(%)	93.4	90.2	91.7
영업현금흐름	-2.1	2.2	2.1
투자현금흐름	4.1	63.8	44.2
재무현금흐름	0.0	6.8	-0.6
기말 현금	7.1	79.7	125.5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Ⅲ.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전망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공격적인 영업망 확충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 시도

동사는 피그먼트 잉크의 상품화와 함께 주력 제품인 전자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POSEIDON)의 국내 및 해외 시장 영업망 확대, 중국시장을 목표로 한 유기용매 기반 대형 프린터 출시, 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신사업 육성 등으로 2022년 매출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 기반기술 확장 적용을 통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동사는 잉크젯 프린터를 개발하면서 축적해온 기술을 다른 첨단산업 분야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분야에 도입가능한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디지털 프린팅 원천기술을 날염공정에 응용한 결과 전사용 텍스타일 프린터 FT 시리즈와 직접 섬유소재에 출력이 가능한 다이렉트용 텍스타일 프린터 FD 시리즈를 출시하여 기존의 노동집약적 섬유산업의 환경을 고생산성 및 친환경성이 도모되는 환경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2022년에는 고부가가치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피그먼트 잉크의 상품화와 함께 주력 제품인 전자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POSEIDON의 판매확대를 목표로 진입하지 못했던 국내 일부 지역(대구, 경북)과 남미 및 중동, 아프리카 시장을 타겟으로 영업활동을 추진하여 영업망을 확대할 전망이다.

[그림 10] 동사의 주력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POSEIDON

동급 최고 속도의 뛰어난 생산성 (1.6m /1.9m)

POSEIDON



2/3 교세라 헤드 - 4컬러 (2 헤드) / 6컬러(3헤드)

5pl, 7pl, 12pl, 18pl 가변도트

Ink : F160 DGI 경품잉크

Rip: Erogosoft (Inedit, Wasatch, Caldera 드라이버 제공)

슬립모드 적용으로 무인운전 실현

대용량 미디어 옵션 별도 판매

프린트모드				출력속도(sqm/hr)	
가로	세로	Mode	Pass	1.6m	1.9m
600	300	IL DBF1	2	135	150
600	600	Normal	2	115	135
600	600	IL DBF1	4	80	85
600	900	IL DBF1	6	55	60
600	1200	IL DBF1	8	40	45

*출처: 동사 IR자료(2020.03)

국내의 경우 환경 이슈와 겹치면서 유기용매를 이용한 광고용 프린터 시장이 감소하고 있어, 동사는 2020년 1.9m 수성안료 현수막/합성지 전문 프린터(OJ-74)를 출시하여 친환경 광고용 프린터 시장에 진입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유기용매 기반 프린터로 틈새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3.2m 대형 시트지용 프린터 출시를 통해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한편, 동사는 유기용매 기반 프린터의 경우 2021년에는 대구, 부산 지역 신규 딜러를 발굴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에 시장점유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해외 유기용매 기반 프린터 시장의 경우 중국계 저가 장비가 글로벌 강세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사는 중국 ODM 프린터를 2021년 하반기부터 판매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유기용매 기반 3.2m 대형 시트지용 프린터도 중국 ODM 개발을 완료하고 1월부터 신규 출시하여 매출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그림 11] 동사의 주력 광고용 잉크젯 프린터 OJ-74

1.9m 수성안료 현수막/합성지 전문 프린터



OJ-74

2 Epson 4720 헤드 - 4 컬러
5 ~ 13pl 가변도트
Designed by DGI, Manufactured in China

Rip : Flexiprint

최고 출력 속도 97㎡/h
고 정밀도 프린트 헤드 2개 스테이지 배열

프린트모드				출력속도(㎡/hr)
가로	세로	Mode	Pass	
720	600	DBF2	2	97
360	1800	DBF2	3	66
720	1200	DBF2	4	51
720	1800	DBF2	6	34

*출처: 동사 IR자료(2020.03)

■ 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신사업 기반 사업 다각화

동사는 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식용색소를 활용한 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종 식품 관련 전시회에서 Sweet Box라는 브랜드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식품용 프린터 시장은 실제 식품을 제작하는 3차원 프린터와 달리 아직까지 경쟁사가 많지 않은 시장으로 국내에서는 동사가 독보적으로 생산,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기업은 일본 MASTER MIND, NEW MIND로 소형에서 대형 컨베이어 타입까지 다양한 종류의 잉크젯 기반 식품용 프린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탈리아 식품산업장비업체인 GORRERI는 대량생산용 컨베이어 타입의 식품용 프린터 1종만 생산하고 있다.

다만, 식품 프린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대중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는 식품 프린팅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과 관련 제품의 우수성 입증을 통해 사업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림 12] 동사의 식품용 잉크젯 프린터 SWEET BOX



Sweet Box

100% 국내 기술로 개발 & 제작
미국 FDA 인증된 안전한 Color Water 사용
자유로운 크기 및 모양
(최대면적 40 x 40 cm, 최대높이 12cm)
다양한 색상의 이미지 및 텍스트 표현 가능
전용 User Interface를 통한 손쉬운 사용

✓ 응용분야: 스낵, 크래커, 마카롱, 떡 등 평면 구조 음식 전체 가능

국내 최초 식품 전용 잉크젯 프린터 **Sweet Box** 활용 분야


마카롱


쌀과자


과자


케이크


라떼 아트


에그타르트

*출처: 동사 IR자료(2020.03)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개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2]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2년 04월 12일)